

동부권식품클러스터 경제 활력 견인

2010~2020년까지 1391억 투자... 지역 특화품목 선정 생산·가공·체험관광 집중 지원

전북도가 '동부권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을 통해 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심하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동부권지역 발전을 위하여 동부권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을 통해 2010~2014년까지 663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2015~2020년까지 2단계사업으로 728억원을 지속 투자하고 있다.

동부권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정해 생산과 가공·체험관광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로 인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고용창출과 관광객 증가 등 지역을 활력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지역별 특화품목을 보면 2단계까지 남원(허브), 진안(홍삼·한방), 무주(천마), 장수(우미자, 장수식품), 임실(치즈), 순창(장류, 건강장수식품)으로 구성된다.

또한 체험관광 시설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과 신뢰,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특히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산업기반을 견고히 하고 지속적인 판로확대를 위한 유통·마케팅에 중점을 두어 추진된다.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전주 발효식품엑스포에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전북도는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건설관련 국가기관, 공공기관장 및 건설 관련 협회장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위원장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개최하고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동부권식품클러스터관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박람회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분기별 사업추진협의회와 시군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동부권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2017년부터는 성과평가를 통해 시군에 인센티브와 패널리티를 적용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올해에

이러 매년 성과평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월사업이 많고, 사업추진이 부실한 시군에 대해서는 패널리티를 부여한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아울러 동부권사업과 연계하여 진안 홍삼, 순창 정국장에 대해서는 향토 명품화사업으로 기능성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도는 이외에도 원주 생강과 순창 불

투베리, 고창 복분자, 부안 오디·뽕 등 지역에 소재하는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건강기능성 인증을 통해 제품을 사업화할 수 있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강승구 도 농축수산물국장은 "향후 동부권식품 클러스터사업 외에도 동부권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오늘 '청년 채용·체험 페스티벌'

전북도, 도청 공연장에서 개최... 8개 사 현장 채용

전북도가 '청년 채용·체험 페스티벌'을 연다.

24일 도에 따르면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6 전북 미래산업 청년 채용·체험 페스티벌'을 25일 도청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와 함께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도내 신산업과 전략산업 정보를 한 눈에 살필 수 있고, 관련 기업 구인구직 행사도 이뤄진다.

특히 청년 채용관에서는 오디텍과 이앤코리아, 피치케이비 등 도내 유망기업 8개 사가 현장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청년구직자를 위한 직무 인·적성 검사와 이미지 메이킹 등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도내 미래산업을 살필 수 있는 체험관에서는 증강현실(VR)과 드론, 3D프린팅 출력, 4D영상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도내 유망기업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미래 일자리를 선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고창~장성 국지도 건설사업 시행

2021년 12월까지 완공 계획

전북도가 고창~장성 구간 도로를 개선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에서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안리까지 연결하는 도계~석정 국지도 건설사업을 시행한다.

국지도 49호선 가운데 고창~장성 구간은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급경사로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터널과 교량 등이 설치되며, 다음 달에 착공해 오는 2021년 12월 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공사발주 시 수급 형태를 지역의 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해 도내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를 49%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도 김찬환 건설교통국장은 "터널 및 교량 설치로 급커브 등 기존도로의 위험요인이 감소돼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교통사고도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우성화학 '쓰레기봉투 QR코드 시스템' 개발

지자체와 위탁판매점에서 쓰레기봉투 생산 물량의 재고 현황과 판매 현황, 위반조 방지 등이 가능한 획기적인 '쓰레기봉투 QR CODES PACK 시스템'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이 가능한 이 시스템은 그 동안 지자체나 위탁판매점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프로그램 탑재기기 구매가 필요 없어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친환경 필름 제품 생산업체인 (주)우성화학(대표이사 석상신)은 최근 '쓰레기봉투 QR CODES PACK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 전국 지자체와 위탁 판매점에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쓰레기봉투의 위반조 방지와 재고 관리의 편의성을 극대화

했으며, 쓰레기봉투 제작에 추가 비용을 없애도록 해 지자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6개 시군에서 사용하기 위해 생산되고 있는 쓰레기봉투 1장당 바코드 사용 비용은 5원~7원 가량으로 계산되고 있다.

따라서 연간 4000만장 이상의 쓰레기봉투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바코드 비용은 2억4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 '쓰레기봉투 QR CODES PACK 시스템'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각 지자체마다 연간 수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현재는 각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몇 개의 리더기를 통해서만 바코드를 읽고 있어 사실상 전체 위

변조를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우성화학은 스마트폰 앱으로 누구나 쉽게 생산 이력 조회와 진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허가된 방식만 접근이 가능한 기존 PDF417 바코드 방식과는 달리 이 프로그램의 앱은 QR코드를 도입, 소비자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쓰레기봉투마다 다른 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위조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코드를 여러 차례 접속했을 때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위반조 식별 기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판매 재고 관리 및 판매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해 관리비용 절감에

재고·판매현황·위변조 방지 등 가능... 무료 공급

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QR코드를 접속할 때 지자체가 원하는 공지사항이나 홍보 등의 영상을 삽입할 수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홍보도 가능해졌다.

석상신 우성화학 대표이사는 "이번에 우리 회사가 개발한 QR PACK 시스템'은 위조 방지나 재고 관리 편의성 등에서 감히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별도의 프로그램과 기기 구매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 제작에 추가 비용을 없애 지자체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동군산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우성화학은 공업용 포장 필름과 폴리에틸렌 필름을 제작 생산하는 지역 향토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안호영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원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23일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안호영 의원은 기관 및 단체의 추천과 국회 출석률, 법안발의, 지역구 활동, 국정감사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는 안호영 의원에 대해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며 의정대상 선정이유를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원주·진안·무주·장수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소통과 공감정치를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상임위 활동을 통한 농산촌 지역개발 위한 입법 활동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안호영 의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A.S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